



미국 농가, 비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옥수수 재배 축소 계획

(US farmers to plant less corn as Iran war spikes fertilizer prices)

미국 농무부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비료 및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 부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26년 옥수수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두 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미국 농무부는 화요일 파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첫 조사 기반 작물 재배면적 추정치를 발표했으며, 분기별 곡물 재고 자료도 함께 공개하였다.

EU 2025/26 연질밀 수출, 3월 29일 기준 7% 증가

(EU 2025/26 soft wheat exports up 7% by March 29)

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2025/26 시즌 연질밀 수출량은 3월 29일 기준 1,748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, 이는 전주 1,714만 톤 대비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 7% 높은 수준이다. 이번 시즌 수출량 내역을 살펴보면 루마니아가 578만 톤으로 최대 수출국을 유지하고 있으며, 그 뒤를 프랑스(457만 톤), 폴란드(222만 톤), 리투아니아(181만 톤), 독일(139만 톤)이 이었다.

튀니지, 국제 입찰 통해 연질밀 약 10만 톤 구매

(Tunisia buys estimated 100,000 tons of soft wheat in tender, traders say)

튀니지 국영 곡물청은 화요일 실시한 국제 입찰을 통해 원산지 선택 조건으로 연질밀 약 10만 톤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. 트레이더들에 따르면, 해당 물량 중 2만 5천 톤은 불가리아 곡물 거래업체 Buildcom로부터 운임 포함 조건(C&F 기준) 톤당 274.73달러의 최저가로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.

요르단, 국제 입찰 통해 밀 약 6만 톤 구매

(Jordan buys estimated 60,000 tons of wheat in tender, traders say)

요르단 국영 곡물 구매기관은 화요일 실시한 국제 입찰을 통해 원산지 선택 조건으로 경질 제분용 밀 약 6만 톤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. 트레이더들에 따르면, 해당 물량은 곡물 거래업체 Cargill로부터 운임 포함 조건(C&F 기준) 톤당 약 275.95달러 수준에서 계약되었으며, 7월 하반기 선적될 예정이다.

출처: Thomson Reuters